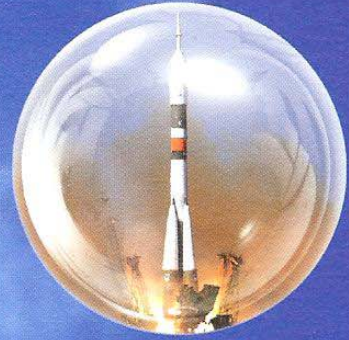


래 · 를 · 꿈 · 꿔 · 니 · 다 · · 인 · 재 · 를 · 가 · 꿈 꺾 · 니 ·



미래와 인재

2009



모든 순간에
발전하고 있는 사람

Field에 나가기 전에 semi pro로서의
디딤돌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다는 행복감

장학금 지원의 의미는
내 마음과 계획과 미래를 인정해 주는 것

권재홍 고려대학교 전자전기공학과 박사과정

상명대학교 컴퓨터공학과 박사과정 이의철



먼저 이번 SBS 서
암학술장학재단 17
기 장학재단에 선정
해 주신 것에 감사
한다. 막상 장학생에
선정이 된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
는다. 하지만,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장학생이
선정된 것은 "Field에 나가기 전에 semi pro로
서의 디딤돌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라는 지도교수님(전기전자파공학부의 주병권
교수)의 가르침과 사랑하는 가족들 및 주변 학우
의 응원덕분이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같은
연구실의 학우의 도움이 컸다. 본 장학재단의 장
학금을 학부 때 수여 받은 경험이 있는 연구실
동료는 나에게 국내 박사과정 연구지원 장학생
모집에 도전하여,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장학생
의 영광을 받으라고 하였고, 지원하기 앞서 약 1
년여 전부터 자격 조건 및 심사 평가 기준에 부
응하기 위하여 노력했다.

이번 장학생 선정에 계기로 더욱더 발전하는 사
람이 되고 싶다. 2008년도 한국과학재단(KOSEF)
과 독일학술교류처(DAAD)가 지원하는 한독대학
원생 교류사업에 지원 및 선정되어 독일 Max
Planck Institute에서 공동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이에 본 장학재단에 제출한 연구주제로 국제적
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국가 과학기술력의 경
쟁력의 기반인 선진연구자가 되는데 초석을 다
지도록 할 것이다

2007년 석사과정을 마치고 박사과정에 진학했다. 박사
과정에 입학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서암학술장학재단
의 국내박사과정 지원사업에 지원서를 제출하고 2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나, 서암학술장학재단으로부터 선정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전국에서 14명만 선발하는 지
원사업에 선정되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찼다.

나는 누구보다도 학교에 대한 애교심이 강하다고 자부하지만, 사람들은 내가 '상명
대학교'에서 박사과정 중이라고 하면, 시큰둥한 반응이다. 소위 말하는 이름값으로
그 학교 소속 학생들을 평가하는 정서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의 시선들이 나의 도
전 정신을 자극했다. 그래서 항상, 부족한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 열심히 준비했
었고, 좋은 연구실적을 위해 노력했다. 서암학술장학재단에서 나를 지원자로 택해
준 것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내 마음과 계획들을 인정해주는 것이라
는 생각 때문에 정말 큰 힘이 되었다.

많은 논문 제출과 새로운 기술에 대한 특허를 출원할 수 있었고 국제학술대회에서
우수논문 상을 받기도 했다. 저명한 저널에 제출된 다른 나라 사람의 논문을 내가
심사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다. 얼마전에는 세계적인 인명사전 마르퀴즈 후즈후 인
더월드 2009년판(Marquis Who's Who in the World 2009)에 내 이름이 등재가
확정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박사 학위가 없는 학생이 인명사전에 등재되는 것은 흔
한 일이 아니라는 말을 듣고, 그동안의 연구들을 인정받았다는 사실이 또 한 번 나
에게 큰 힘이 되었다. 나는, 얼마전 다른 학교로 적을 옮기셨지만 계속 정성스럽게
지도해 주시는 박강령 교수(동국대학교 전자공학과)님과 사소한 것까지도 친절하게
신경써주시는 조용주 교수(상명대학교 디지털미디어학부)님의 지도를 받아 디지털
영상처리, 컴퓨터 비전, 사용자 인터페이스 분야의 연구하고 있다.

이제 박사과정 시간이 1년 남았다. 좋은 지도교수님 덕분에 내가 하고 싶은 연구
들을 별 무리 없이 수행해 왔다. 이렇게 편하게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기도
쉬운 일이 아닌데, 나는 참 행운아인 것 같다. 서암학술장학재단의 지원이 헛되지
않도록, 남은 시간 또한 열심히 연구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술들을 개발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